

7/12(화) 잠언 10-12장 지혜, 창조의 순리 찾기

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왜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?

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(2:6, 8:22, 창1:1 참고).

하나님은 이 세상에 본질적인 질서와 조화, 법칙들을 심으셨습니다(implant).

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 전체에 적용됩니다.

잘 살고 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?

하나님께서 지으신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.

이 순리는 <하나님의 지혜>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.

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지성과 지능의 모자람이 아닙니다.

순리를 거슬러 파국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.

(야간/나발/사울, 수7:15, 삼상25:25, 26:21)

잠언은 순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합니다.

하나님의 지혜는 <여호와를 경외>하는 것에서 시작되며(1:7),

순리를 깨달은 자는 <의롭게>(히. 차띠크) 살게 됩니다.

<의로움>은 단순히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

두 인격체 사이의 <의로운 관계>가 성립되는 것입니다.

즉,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과의 <올바른 관계>에서

하나님의 질서가 반영된 계명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.

의 : 겸손, 근면, 정결, 정직, 신실, 분변, 인내, 절제, 관대함,

인자와 진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.

잠언은 다양한 금언들의 연속입니다(saying, 10-22:16).

의도나 맥락 없이 뒤죽박죽 모아놓은 것 같아 보여도

결국 <여호와 경외>와 <의로운 삶>으로 귀결됩니다.

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우연의 연속 같아 보이지만,

그 속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가 있습니다.

나는 <순리대로> 살고 있습니까?

❶ <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>는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.

❷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<순리>대로 <의롭게> 살고 있습니까?